

## 작품 개요

「꿈 팔아 외롭 사서」는 작곡자가 47세 때인 1969년 5월 9일 수주(樹州) 변영로(卞榮魯, 1898~1961)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, 이 곡은 1969년 5월 31일 변영로 선생 기념비 제막식에서 부인인 알토 유경손(柳慶孫, 1921~2011)에 의해 초연되었고, 1976년 10월 22일 수정되었다.

## 작품 해설

이 곡은 단순화된 선율선의 음정 구조가 간결미를 돋보이는 동시에 지극히 토속적인 향취를 느끼게 하는 음정 구조를 갖고 있다. 즉 음계 구성은 'F-G<sup>b</sup>-A-C-D<sup>b</sup>' 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5음음계 중에서 제2음과 제5음을 반음 내림으로써 형성되는 음계로서 중심 음을 딸림음에 해당되는 도(C)음에 두고 있다. 이러한 음계구성은 민속적인 색채를 더욱 강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. 즉, 이 중 주로 쓰인 음정인 C'-F의 완전4도와 F'-G<sup>b</sup>, C;-D<sup>b</sup>에서 이루어지는 단2도의 음정들은 단순한 5음음계보다 더 토속적인 향내를 풍기게 해 준다. 그 까닭은 소위 국악음계로 알려져 있는 5음음계(궁상각치우)의 개념이 서양의 음계에 비교해서 그 근사치의 음들을 뽑아 놓은 것일 뿐 실제 사용되던 전통적인 소리의 구성음은 서양식의 주파수의 수치에 입각한 온음·반음의 음정으로 분류될 수 없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토속선율을 서양식의 기보법으로 표기할 때 불가피하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곡에서 작곡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음의 사용과 비브라토의 사용 등 아티클레이션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생각된다.

- 이창자,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, 음악과 민족 제9호,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-

## 작곡자가 제시한 연주법

1) 제1,2절은 8, 8, 8, 8, 8, 5 장단

제3절은 8, 8, 8, 8, 8, 8 장단으로 연주할 것

2) ♩는 처음부터

♩ 이상은 둘째박부터 바이브레이션(Vibration)을 붙여 연주할 것

3) 8, 5 박자 장단은 아래와 같이 연주할 것

8박자



